

고전의 제왕학과 현대경영의 조화

춘추전국시대의 경영전략가들



한국지역난방공사
재무처장
손창일

古典은 고전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 그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음으로서 가능하다. 그게 비록 2000년전에 쓰였거나 동양인이 썼거나 서양인이 썼거나에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영양분이나 다름없는 영원불변한 진리가 담겨져 時空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다.”라는 크로제(Croce)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인물 사는 총체적으로 다시 쓰여 져야한다. 모든 역사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중국 역사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평가와 설명은 일정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고 우리는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와 이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을 경영하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것이 예부터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이다.

중국 전통의 정치핵심은 ‘人治’이고 중국 전통문화의 근본은 ‘治人’이다 즉 중국 문화의 핵심은 ‘人間’이었다 할 수 있다.

현대는 불확실성시대라 말한다. 이는 첨단과학기재가 제아무리 발달해 미래를 꿰뚫어보듯이 예측하더라도 그 오차는 있기 마련이며 그 만큼 세상살이의 변수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복잡다단한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요구되는 건 그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조직의 일원이든 간에 그에게 필요한 무기는 불확실성시대에 살아가며 성공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 주왕조(周王朝)의 명참모역(名參謀役)인 주공(周公)

정치가를 지망했던 공자(孔子)가 이상적 정치가로 흠모했던 인물이 주공(周公), 즉 주공단(周公旦)이었다. 만년(晩年)에 공자는, “애석하도다. 이 몸도 쇠(衰)했구료. 벌써 오랫동안 주공(周公)을 꿈에서 볼수가 없었으니...”라며 한탄했다.

체력과 기력이 모두 쇠하여서 그토록 흠모하던 주공단을 꿈에서조차 볼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건강했을 때의 공자는 이따금 꿈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주공단이라는 정치가를 흠모하고 추앙했었던 것이다.

중국의 고대왕조는 하(夏)·은(殷)·주(周)로 이어져 내려왔

다고 전해진다. 은왕조를 멸망시킨 후 주왕조(周王朝)가 성립되는데 주왕조의 초대왕은 문왕(文王)이고 2대왕은 무왕(武王)이며, 3대왕은 성왕(成王)이다. 주공단은 문왕의 아들로서 무왕의 동생이었으나, 성왕에게는 숙부에 해당된다.

■ 주왕조의 창업에 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

정치가로서의 주공단은 형인 무왕을 도와서 주왕조의 창업에 공헌함과 동시에 무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이가 어린 성왕을 보좌하여 주왕조의 기틀을 다져냈다. 연대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3천여년 전의 인물이다.

그야 어쨌든 공자는 무슨 이유에서 그토록 주공단을 흠모하였을까? 물론 그 첫째는 주공단이 주왕조의 창업에 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한 데에 있었다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보좌역으로서의 분수를 지킨 그 겸허한 정치자세를 높이 평가했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나라의 수양대군이 그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한 사건을 볼 때 주공단의 애국정신과, 비록 조카일망정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실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주공단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온다.

주공은 그 공적(功績)에 의하여 노공(魯公)에 봉해졌는데 국정의 기둥이었으므로 아무래도 주나라 중앙 도읍에서 노나라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봉지(封地)인 노나라에는 아들 백금을 보내기로 했는데 <사기(史記)>에 의하면 그 때 주공단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려서 보냈다고 한다.

“백금아, 잘 듣거라. 나는 문왕의 아들로서 무왕의 동생이니, 금상의 숙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는 제후들 중에서도 제일 윗자리에 있는 신분이지만 누구라도 나를 찾아오게 되면 머리를 감다가도 그대로 달려나가서 맞았고, 음식을 먹다가도 그대로 달려나가서 맞음으로써 예(禮)에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힘을 썼느니라. 그러면서도 소홀하거나 부족되는 점이 혹 있지 않나해서 늘 조심을 했었어. 행여 내 실수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를 놓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말이다. 너도 노나라에 가거든, 아무리 국군(國君)이라 하더라도 결코 교만하게 굴어서는 못쓴다. 내 말 알아듣겠느냐.”

이 말 이외에도 <논어(論語)>에 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

을 들어서 아들 백금을 혼계했다고 한다.

■ 옛날의 법도를 함부로 뜯어고쳐서는 안된다.

“노나라에 가서 왕위에 오르거든 우선 첫째로 친족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둘째로는 중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불만을 가지게 해서 안된다. 셋째로는 옛날의 법도를 함부로 뜯어고쳐서는 안된다. 마지막 넷째로는 부하에게 과도하게 기대를 걸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상은 모두가 인간학(人間學)의 금언(金言)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주공단은 또 정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령(政令)이 번잡하면 백성은 따르지 아니한다. 속박을 의식하지 않게 하며 스스로 귀복(歸服)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요체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 역시 무위자연(無爲自然)에 기운 ‘황로(黃老)의 정치를 마음에 두고 한 말인 듯하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지도자와 참모역의 관계는 어렵다. 주공단의 경우에도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이다.

주공단은 나이 어린 조카 성왕을 대신하여 7년 동안이나 섭정을 하며 국정의 대권을 쥐고 주왕조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그러나 성왕이 성장하자 국정의 대권을 넘겨주고 신하의 자리로 물러앉아서 신하의 예를 다하며 성왕을 받들었던 것이다.

정치세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중상모략이 따르게 마련이다. 주공단이 성왕에게 대권을 넘겨주자 있지도 않은 영똥한 말로 주공단을 중상하는 자가 있었다.

젊은 성왕은 그 말을 듣고 부쩍 의심을 하게 된다. 주공단은 할 수 없어 주나라를 떠나서 초나라로 피신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주공단은 사전에 그런 사태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예방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온다.

■ 부하에게 과도하게 기대를 걸지말라.

성왕이 아직 어렸을 때, 그는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한 일이 있다. 그때 주공단은 황하의 수신에서 제사를 지내며 축문을 지어서 읽되, “금상(金上)은 아직 유충하시니 모든 책임은 이 몸에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벌은 저에게 내려주소서.” 그런 다음 그 제문을 밀봉하여 왕궁의 서고에 보관해 두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했었다는 것이다.

후에 이 제문을 발견한 성왕은 황급히 주공단을 불러오게 하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불면했음을 사과했다고 한다.

한편 <서경(書經)>에 의하면 이야기는 약간 달라진다.

주무왕(周武王)이 목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킨 다음 2년이 되던 해, 아직 주왕조의 기틀이 잡히지도 않았고 천하도 안정되지 않았을 때다. 무왕은 그만 병상에 눕고 말았다. 때가 때인 만큼 군신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때 주왕조의 창건에 공이 컸던 태공망과 소공석이 무왕의 병을 알아보기 위해 귀복점을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주공단이 말했다.

“종묘에서 점을 치지 않으면 조상님들의 영혼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주공단은 자기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제단을 쌓고 북면(北面)하고 서서 옥(玉)을 손에 들고 조상의 영혼에게 제문을 읽어나갔다.

“조상님들의 후손인 무왕은 너무나도 과로한 나머지 그만 질병으로 눕게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님들의 영혼이 하늘 위에 계시어서 저희를 지켜주신다면 바라옵건대 무왕 대신 제 목숨을 앓아 가소서.”

그런 다음에 세 명의 태복에게 점을 치도록 했던 바 모두가 ‘길(吉)’하다는 점괘가 나왔다.

“됐소. 이제 상감은 쾌차하실 거요.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실 거요.”

주공단은 그렇게 말하고 제문을 금고리쪽에 담아서 관리자에게 주며,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입을 떼지도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다음날 무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리고, 2년 후에 무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태자는 아직 나이가 어렸다. 태자가 즉위하여 정사를 다스리니 이가 성왕인데, 부득이 주공단을 섭정을 맡게 되었다.

■ 겸허한 처세 · 신중한 배려

세상은 어수선했고, 주공단을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생겼다.

“실은 주공단이 무왕을 빨리 죽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운 것이 종묘에서 무왕을 낮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공단은 주왕실을 넘보고 있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은 주공단의 동생인 관숙과 채숙 등이었다. 주공단의 처지는 난처했었다.

그리고 얼마 안되어서 관숙과 채숙 등은 멸망한 은왕조의 왕자 녹보를 업고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단은 성왕의 명을 받고 군사를 회동하여 이들을 토멸하러 나섰다. 그리고 약 2년간에 걸친 싸움 끝에 이들을 토멸하고 관숙을 잡아 죽였으며 채숙은 외국으로 추방했다.

그런데도 나이 어린 성왕은 주공단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 유언비어를 믿고 있던 성왕은 항상 숙부인 주공단을 경계하며 불안해 했었던 것이다. 그런 눈치를 챈 주공단은 성왕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주왕실의 위기를 새에 비유하여 시를 썼다. <서경 금등편>에 나오는 즐거이러니와 <서경 빈풍편(?風篇)>의 ‘치효(?巢)’가 바로 그 시이다. 여기서 치효라 함은 ‘부영이’를 가리킴이다.

이 시에 의해 성왕의 의심은 완전히 풀렸다고 한다. 어쨌든 보좌역이 자신을 지키려면 겸허한 처세와 함께 신중한 배려도 필요한 것 같다. (참고자료: 『경역과 帝王學』)

